

TOURISM SCOPE

Volume 32
2014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Sun yat-sen Memorial Hall, Guangzhou, China

Joint Tourism Product Development Project of
Busan Metropolitan city & Gimhae city

Wedding Road of The Queen Heo

Story of the Korean King Suro and Indian princess Heo

Story of The Queen Heo

The marriage of King Suro and Queen Heo is the first international marriage on record in Korean history. The legend states that princess Heo arrived on a boat from a distant kingdom (Ayodhya) in India, and married king Suro of Geumgwan Gaya, Korea, in the year 48 CE.

Wedding Road of the Queen Heo Parade & Festival

was held at the Daeseongdong Ancient Tombs site in Gimhae city and the Hwamyong Ecological Park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on November 8, with more than 1500 visitors. This is a joint project conducted by the two cities and organized by TPO. This festival was performed in a storytelling format, retelling the tale that Queen Heo from India arrived on the Korean peninsula 2,000 years ago to marry King Suro of Gaya, which was a kingdom based in Gimhae. Joint tourism product development project of "Wedding Road of the Queen Heo" co-hos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imhae city**, is expected to become a successful model for joint projects that are developed based on the local history and tourism resources.



Organizer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Call us Tel. +82-51-502-2987 Fax. +82-51-502-1968

Sponsor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현재 76개 도시 정부와 38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CULTURE & TRAVEL 신한류의 메카, 고양시
08	SPECIAL 광저우 산책 Travelling Guangzhou
14	CITY THEME TOUR 포항 시티투어버스 여행 One Day Tour
18	CITY THEME TOUR 인도양의 에메랄드, 페낭 The Jewel of Indian Ocean, Penang
24	TREND & ANALYSIS 겨울철 온천 스폿 베스트 6 Top Hot Spring Destinations for Winter
28	TPO INTERVIEW 다툽 자이날 아부(Datuk Zainal Hj. Abu) 몰라카 시 시장
30	TPO NEWS
32	FESTIVAL CALENDAR

신한류의 메카 고양시

영화 <도둑들>, <타워>, <고지전>, <해운대>, 드라마 <드림하이>, <아름다운 그대에게>,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곳, 바로 경기도 고양시다. 인구 100만의 도시이자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온 고양시에선 한국의 최신 트렌드가 집약된 초대형 쇼핑몰, 액티브하고 익사이팅한 테마파크, 드라마 세트장, 무역전시장 등 한국에서 즐길 최고의 즐거움을 두루 만날 수 있다.

고양시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시
면적	268.05km ² 로, 경기도의 2.6%에 해당한다.
인구	100만 2152명(2014년 9월 기준)
기온	서울과 대체로 같으며, 연평균 기온은 11℃, 1월 평균기온은 -4.9℃, 8월 평균기온은 25.5℃, 연강수량은 1236mm이다.
개요	고양시는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3개의 구로 이뤄져 있다. 1990년대 초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1992년 고양에서 고양시로 승격, 2014년 8월 1일, 인구 100만을 돌파했다.



한류의 모든 것

드라마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 '한류월드'를 걸어보고, 초대형 쇼핑몰에서 한국 최신 트렌드를 느껴보자.



스노파크, 워터파크가 한곳에! 원마운트

스노파크와 워터파크가 결합된 세계 최초의 신개념 테마파크. 실내외를 넘나들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는 짜릿한 슬라이드와 파도 풀, 자이언트 플레이, 닥터피시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동화 속 겨울나라에 온 듯한 '스노파크'는 동남아시아 여행자에게 인기 만점이다. 흰 눈을 맞으며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아이스레이크'와 300m 고속 활주로인 '아이스로드', 회전목마, 트리하우스, 개썰매, 눈썰매장 등 갖가지 겨울 놀이를 즐기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빙판 위에서 신나게 질주하는 개썰매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하루 3번 운영된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북유럽 산타마을을 콘셉트로 꾸민 트리하우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실제 핀란드 산타마을에서 산타가 방문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찾아기는 법 지하철 3호선 주엽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전화 1566-2232 홈페이지 www.onemount.co.kr

도심 속 바다 세상 아쿠아플라넷 일산

호수공원과 원마운트 사이에 세워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수족관과 동물원을 결합, 수상생물과 육상생물, 조류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14년 4월 문을 연 이곳은 지상 4층의 크루즈 형태의 건물로, 해양생물 체험관인 '더 아쿠아', 육상동물관인 '더 정글', 조류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로 12m의 초대형 메인 수조인 '딥블루오션'에선 싱크로나이즈 쇼, 먹이주기 등 다채로운 수중 공연이 펼쳐지고, '더 젤리 피시즌'에선 대양해파리, 꽃우산해파리 등 9종의 해파리들이 조명에 반사돼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바다코끼리를 비롯해 재규어, 알락꼬리원숭이 등 총 220여 종, 2만 5000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전화 031-960-8500 운영시간 주중 10:00~19:00, 주말 10:00~20:00 입장료 성인 2만 7000원, 청소년 2만 4000원, 어린이 2만 2000원 홈페이지 www.aquaplanet.co.kr/ilsan



일산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 쇼핑몰 라페스타 & 웨스턴돔

일산의 1세대 문화 공간,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서로 마주 보며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일산의 명동'이라 불리는 라페스타는 지하 1층, 지상 5층, 총 6개 동의 스트리트형 쇼핑몰로 이뤄져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 무대는 드라마 <드림하이>의 엔딩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돔형의 멀티플렉스 '웨스턴돔'은 쇼핑센터, 레스토랑, 영화관 등 각종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1층에는 의류부터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언더웨어 등의 패션 매장이 있고, 2층에는 음식점과 헤어숍이 자리해 있다. 수도권 서북부 최초의 아이맥스 영화관, CGV도 불만하다.

주소 라페스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56, 웨스턴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전화 라페스타 031-920-6900, 웨스턴돔 031-932-8400



**전 세계 드라마 팬들의 성지
SBS 특별전시관 <별에서 온 그대>**

킨텍스 제2전시장 야외특설전시관에 들어선 드라마 세트장.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도민준(김수현) 집, 천송이(전지현) 집 등 오리지널 세트와 체험시설, 기념품숍 등이 자리해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도민준 서재. 대중에게 개방해 좀 더 가까이서 관람하고 기념 촬영까지 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도민준이 탔던 실제 자전거, 도민준이 순간 이동할 때 사용한 공중전화 등을 그대로 옮겨놓아 드라마 속으로 흠뻑 빠져들 수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 운영시간 10:00~19:00(2015년 8월 31일까지) 전화 070-8260-8807 홈페이지 lovefromstar.sbs.co.kr



**한국 MICE 산업의 중심
킨텍스 Kintex**

교통과 통신, 첨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두루 갖춘 한국 최대의 무역 전시장. '2016년 로터리세계대회'가 열리는 국제 컨벤션 센터로, 각종 국제박람회와 전시회, 체육 행사, 음악 공연 등이 열려 국내외 비즈니스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전화 031-810-8114 홈페이지 www.kintex.com



**한류 스타의 발자취를 따라
고양 신한류홍보관**

고양시에서 촬영, 제작된 신한류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조성된 곳. 빅뱅, 소녀시대, 아이유 등 한류 아이돌 스타들의 테디베어가 전시된 '신한류캐릭터존'을 비롯해 '고양로케이션존', '한류콘텐츠 상영관', '모바일 인터넷 카페' 등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고양시가 제작, 지원한 한류 아이돌 드라마 <드림하이>의 주요 촬영지와 명장면, 제작 발표회 등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 주인공들의 핸드 프린팅과 실제 세트 일부 등이 전시돼 있고, 촬영 시 사용한 교복을 입어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걸어서 10분 거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내 꽃전시장 2층 전화 031-908-3236



**럭셔리한 특급호텔
엠블호텔 킨텍스 MVL Hotel Kintex**

경기도 북부 최초의 특급호텔. 대명레저 산업이 엠블호텔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브랜드 호텔로, 한류월드로 중심에 위치해 있다. 34개 스위트룸을 포함해 377개 객실을 보유, 품격 높은 피트니스클럽과 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코리안 스위트'는 한국식 온돌방을 체험할 수 있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중식당 '죽림'에선 불도장, 북경오리, 광둥식 통후추 찜스테이크 등 중국 정통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출국 전 하룻밤 묵기에 더없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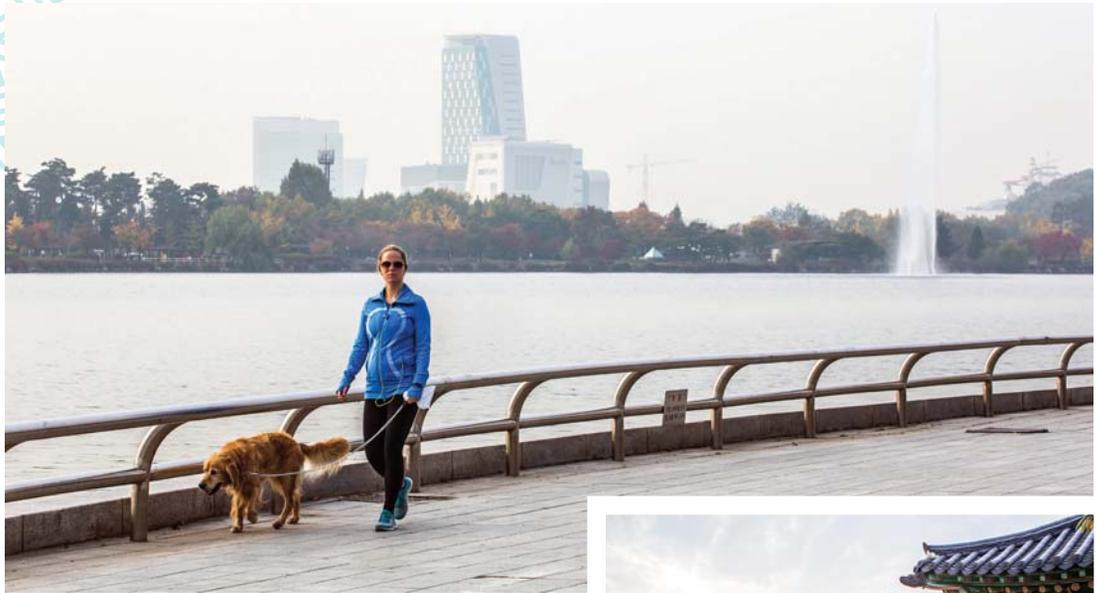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 전화 031-927-7700 홈페이지 www.mvlhotel.com/kintex

도심 속 자연을 느끼다

도심 한가운데서 생생한
자연을 느끼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호수공원을 물들이는 환상적인 음악 분수 노래하는 분수대

호수공원 서쪽 광장에 위치한 분수대. 주분수대의 지름은 50m, 분수 최고 높이는 35m로, 1655개 노즐에서 500가지의 다양한 분수 쇼를 선보인다. 색색의 조명과 음악, 분수, 3박자가 어우러져 일산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시민들로부터 신청곡을 받기도 하는데, 겨울을 제외한 4~10월에만 감상할 수 있다.
전화 031-924-5822 홈페이지 music.gys.or.kr



세계 수준의 인공 생태공원 호수공원

한국 최대의 인공호수.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조성된 이곳은 전국 산책 코스 1위로 꼽히고 있다. 호수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습지생태공원과 전통정원, 야외무대, 노래하는 분수대, 월파정, 전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750m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피톤치드 향을 느끼며 호젓하게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공원을 한 바퀴 둘러봐도 좋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 극중 도민준과 천송이가 만난 산책로에 포토 존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찾아기는 법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걸어서 10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전화 031-906-4557 운영시간 05:00~23:00 홈페이지 www.lake-park.com

의료 한류를 선도하는 명지병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으로 지정된 명지병원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촬영지로, 드라마 종영 후에도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드라마의 주요 배경지인 반(半)가방형의 정신과 병동 '해마루'를 비롯해 숲 속 정원을 옮겨 온 듯한 건강보험검진센터 '솔마루', 통유리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암 통합치유센터 항암주사실' 등 환자 중심의 인력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돋보인다. 1층에 국제진료센터를 운영, 해외 환자의 입국에서부터 진료, 주변 관광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회수로 14번길 55 전화 031-810-5114 홈페이지 www.mjh.or.kr



찬란한 500년의 역사가 잠든 서오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름은 조선왕릉 40기 중 명릉, 익릉, 경릉, 흥릉, 창릉 5기가 자리해 있다. 추존왕 덕종과 소혜왕후의 능인 '경릉', 조선 8대 왕 예종과 계비 인순왕후의 능인 '창릉', 19대 왕 승종과 인현왕후, 둘째 계비 인원왕후의 능인 '명릉',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능인 '익릉', 21대 왕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능인 흥릉 등 5개의 왕릉을 볼 수 있다. 숙종의 후궁으로 질투심이 많았던 희빈 장씨의 대빈묘도 눈길을 끈다. 풍수지리 명당인 서오름에서 왕가의 기운을 받으며 산책해보자. 서어나무길, 소나무길, 단풍길 등 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숲 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깅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입장료가 무료.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름로 334-92 전화 02-359-0090 운영시간 11~2월 06:30~17:30, 3~10월 06:00~18:30 정기 해설시간 10:00, 13:00, 15:00 입장료 1000원 홈페이지 goyang.cha.go.kr

광저우 산책

Travelling Guangzhou

중국 최대의 무역도시 광저우는 광둥성의 성도이자 중국의 대표 비즈니스 도시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았던 중국 변화의 중심이다. 이 변화의 도시를 즐기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광저우 여행 정보

위치	중국 광둥(廣東)성의 성도이자 화남(華南) 지방 최대의 무역도시
면적	7434km ²
인구	1400만 명(2013년 기준)
기온	연평균기온은 21.8℃, 1월 평균기온 13.3℃, 7월 평균기온 28.4℃, 연평균 강수량은 169mm이다.
개요	행정구역은 8개의 구(區)와 4개의 시(市)로 나뉜다. 2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시로 동북부와 중부는 산지와 구릉지대, 서남부는 평원지대다.

01. 낭만파를 위한 *Night Course*

팡쿤강칭주바지에 Fangcun Bar Street

강변은 경치가 좋아서인지 세계 어디를 가도 운치 있는 바와 클럽이 많다. 광저우 주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주장의 강남 쪽에 위치한 팡쿤 바 스트리트는 해가 지면 화려한 네온사인인 번쩍이며 거리 전체가 유흥가로 변신한다. 지역명에 '바(Bar)'가 들어갈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실제 광저우에서 바를 찾기란 쉽지 않다. '분위기 있는 바'가 많은 곳을 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시끄러운 클럽'을 추천해준다. 이곳도 '팡쿤 바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바'는 없고 '클럽'만 많다. 그래도 이곳에서 생음악을 곁들여 강바람을 맞으며 광저우 젊은이들의 밤 문화를 구경할 수 있다.



주장 珠江

광저우 도시를 가로지르는 주장이 '진주(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은 유명한 광저우 전설에서 찾을 수 있다. 남월국의 왕은 무척이나 진귀해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 왕이 죽은 후 그 진주는 그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한 학자가 위험에 빠진 요정을 구해줬고, 요정이 감사의 표시로 왕릉에 묻혀 있던 진주를 선물했다. 학자는 이 진주를 퍼르시안 상인에게 비싼 값에 팔았으나 상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의 주장에 실수로 진주를 빠뜨렸다. 그 후 이 강은 진주처럼 맑고 영롱해져 주장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특히 밤에는 달빛에 비친 강이 진주와 같은 빛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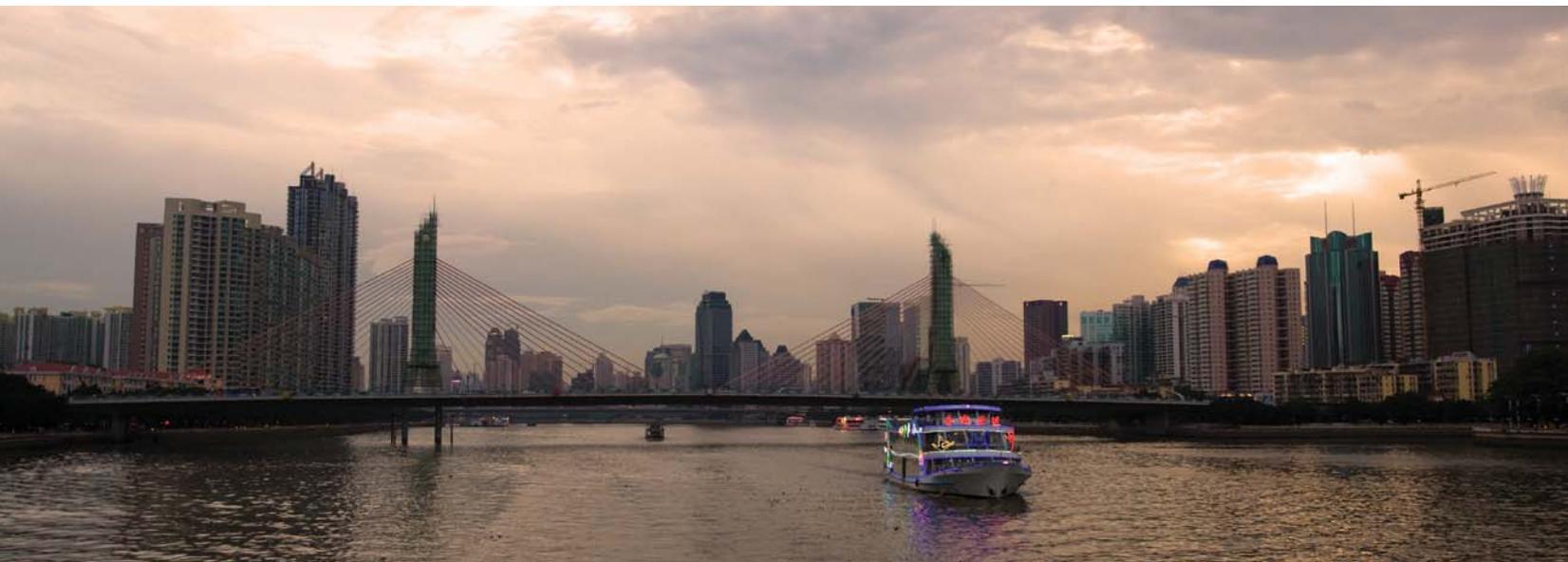
안지안루 沿江中路

주장 남쪽에 팡쿤이 있다면 북쪽에는 안지안루가 있다. 강을 끼고 안지안루에 들어선 고층 빌딩의 1층은 대부분 클럽이나 바다. 팡쿤에 비하면 클럽의 규모나 수준이 호텔 시설에 가깝다. 하지만 대부분 네온사인인 화려하며 음악이 시끄러운 클럽이고, 지에팡다리 근처에는 우리나라 홍대 클럽과 같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즐겨 찾을 법한 클럽이 주를 이룬다.



중산대학 中山大學

크루즈 선착장 중 하나인 중산대학은 입구부터 대학 건물까지 이어지는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낮에는 어린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밤이 되면 어른들이 사교댄스나 기체조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대학 문화로 활동적인 중국 사람들의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02. 학구파를 위한 Day Course



첸지아쓰 陳家祠

중국의 10대 성씨 중 하나인 진(陳)씨 일족이 청(淸)대에 창건한 서원으로 현재는 민속 문화와 공예 문화를 선보이는 광둥 민속공예박물관으로 통한다. 서원의 문과 창문, 벽, 지붕 마루대, 병풍 등에 새겨진 장식은 너무 섬세해 자칫 보지 못할 수 있으나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다. 광둥 민속공예박물관이 이곳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첸지아쓰가 청나라의 민속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도자기와 종이 공예품, 칠기, 자수, 상아·나무·돌 조각품 등이 '광둥 자수', '광둥 조각', '광저우 고건축' 등의 주제로 상설 전시된다. 이곳을 방문한 한 문인이 '자연의 창조 능력에 버금간다',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10년 동안 읽은 책에서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글을 남겼을 정도로 장인들이 실력 발휘를 톡톡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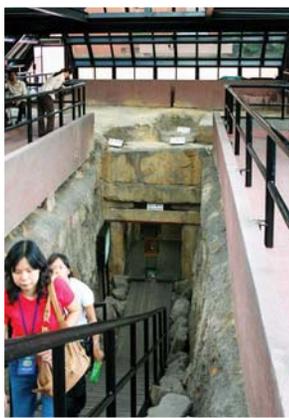
찾아가는 법 버스 85·88·104·107·128·268번, 지하철 1호선 첸지아쓰 역 하차 운영시간 08:30~17:00



서한남월유에왕보우구안

서한남월왕릉터를 중심으로 세워진 박물관. 남월국은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자 남중국을 조타가 내란을 일으켜 광저우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진나라의 멸망과 함께 남중국을 통합해 창건한 나라다. 전성기에는 지금의 베트남까지 차지할 정도로 강성했다고 전해진다. 진나라에 이어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와 대립하던 중 기원전 111년 남월국은 5대 93년 만에 멸망했다. 길진 않지만 예로부터 무역업이 발달해 왕릉에서 출품된 물건들은 화려했던 남월국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1만 4647m² 규모의 왕릉 안에서 1만 1465개 유물과 15구의 시신이 출토됐다. 15구의 시신은 왕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왕의 무덤에 산 채로 같이 묻힌 신하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야외 전시관의 실제 무덤 터는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운영시간 09:00~17:30 입장료 12위안



류롱스 六榕寺

광저우의 4대 불교 사찰 중 하나인 류롱스는 송(宋)대 으뜸가는 시인 소동파(蘇東坡)가 사찰 내 여섯 그루의 용수(榕樹)나무를 보고 '육용(六榕)'이라는 휘호를 쓰면서 절의 이름이 연유했다. 사찰 내에는 높이 57.6m의 팔각 화탑(花塔)이 있다. 이 화탑은 '천불(千佛)'탑이라고 불리며, 외관상으로는 9층 건물이나 실내는 17층으로 돼 있다. 고대 광저우에서 보기 힘든 고층 건물로 탑 꼭대기에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다. 소동파가 언급한 여섯 그루의 용수나무가 아직 살아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다.

찾아가는 법 버스 56·58번의 류롱스 역에서 하차하거나 지하철 1호선 공유안치안(公園前) 역 하차 운영시간 08:00~17:00 입장료 10위안

+ More Information



차오모 왕릉

남월국의 2대 왕인 차오모(趙昧)의 왕릉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무덤 내부는 집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거실과 침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구들도 그대로 비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 왕릉에 묻힌 희생자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도굴되지 않도록 정지한 걸쇠의 미니어처를 전시해 그 원리를 설명한다. 잔인하지만 기발하다.



03. 휴식파를 위한 Day Course



사멘다오 沙面島

광저우 주장에 위치한 '사멘다오'는 섬이다. 복잡한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섬으로 인식하기 힘들다 강을 끼고 이곳은 송나라와 청나라 시대부터 서양과 무역, 관광의 입구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이곳에 유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 그 수가 150개가 넘는다. 섬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건물이 유럽식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골목을 따라 조성된 폭이 좁은 공원은 울타리가 없어 인도와 공원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골목 양옆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오래된 유럽식 건물 사이사이로 사멘다오를 찾은 이들을 더욱 여유롭게 해주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다. 가까운 카페에서 산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며 공원을 거닐다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에 몰두한 아이들과 결혼 사진을 촬영하는 신랑, 신부를 볼 수 있다. 공원 곳곳에 위치한 동상들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변화한 광저우의 생활상을 잘 표현한다. 서양인과 중국인이 나란히 앉아 장기를 두는 모습, 중국 전통 복장을 한 아이가 서양식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 모습 등 재미있는 동상이 많다. 그때의 혼란과 발전상을 영화화한 <황비홍>의 주인공들 같아 웃음을 자아낸다.



위에서우공위안 越秀公園

언덕과 호수로 이루어진 '광저우의 허파', 위에서우공위안은 총 면적이 86만 8000m²다. 웬만한 주거 단지보다 넓은데, 삼삼오오 모여 제기를 차는 광저우 시민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쌀쌀한 날씨에도 민소매 차림으로 제기를 차는 사람들과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째 바위에 걸터앉아 장기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 위에서우공위안은 광저우 최대의 종합 시민공원이다. 특히 높은 언덕에 위치한 정자에 앉아 있으면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와 있는 듯하다.



찾아가는 법 버스 5·21·24·33·58·101·122·127번, 지하철 1호선 위에서우공위안역 하차 운영시간 06:00~21:00 입장료 5위안

+ More Information 전하이러우 鎮海樓

위에서우공위안에서 눈에 띄는 붉은색 건물이 있다. 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지만 시선을 끄는 색과 모습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까지 끈다. 우리의 고건물과 달리 5층 고층 건물이 낮설어 더 매력 있다. 전하이러우 건물은 광저우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건물로 진나라의 '8가지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광저우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의 5층에서 광저우 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얼사다오 二沙道

사멘다오와 함께 주장에 위치한 섬, 얼사다오는 예술특구와 같다. 하이인 대교와 광저우 대교 사이에 위치한 얼사다오는 주장 중심에 솟아 있어 주장의 경치를 가까이서 볼 수 있

다. 강 주변에 있으면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진다고 해서일까. 얼사다오에 상하이 뮤직홀, 광동 미술관 등 예술 공간이 밀집해 있어 광저우 예술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뮤직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젖은 채로 주장의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04. 활동파를 위한 One Day Course



시메롱 워터파크 长隆水上

짜릿한 경험을 원하고 높은 곳이 무섭지 않다면, 시메롱 워터파크의 다양한 어트랙션에 도전해보자. 슈퍼 볼 몬스터(Super Bowl monster), 슈퍼 스피커(Super Speaker), 제트 슬라이드(Jet

Slide) 등 110m 고공까지 치솟는 아찔한 어트랙션이 무려 8가지나 준비돼 있다.

운영시간 일~목요일 09:30~18:00, 금·토요일 09:30~21:30 **가격** 성인 180위안, 4월 15일~5월 31일 90위안, 6월·9월 1일~10월 8일 128위안(패키지 요금 9월 한정 시메롱 파라다이스+워터파크 285위안, 인터내셔널 서커스+워터파크 218위안)
홈페이지 <http://waterpark.chimelong.com>



시메롱

디즈니랜드와 맞먹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원이 광저우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시메롱은 시메롱 파라다이스 놀이동산, 시메롱 서커스, 시양지양 사파리 파크, 광저우 악어공원, 시메롱 호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모에서 '역시 중국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찾아가는 법 지하철 3호선 한시장롱(汉溪长隆)역 하차 후 E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탑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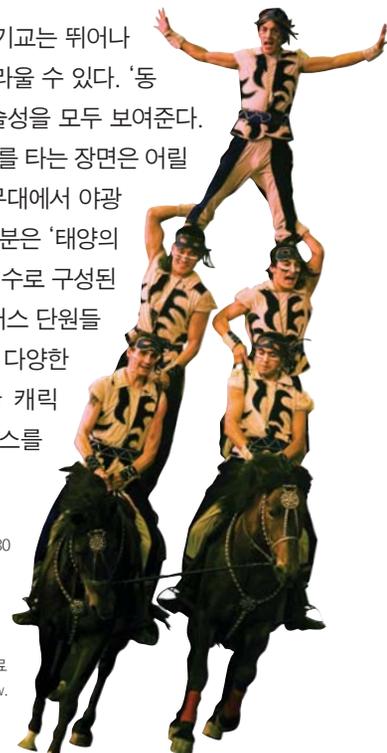


시메롱 인터내셔널 서커스 International Circus

시메롱 인터내셔널 서커스는 시메롱 파크의 자랑이다. 기교는 뛰어나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중국 서커스를 상상한다면 더 놀라울 수 있다. '동춘 서커스'의 아기자기한 재미와 '태양의 서커스'의 예술성을 모두 보여준다. 곰이 조련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오코통을 굴리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은 어릴 적 본 서커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불이 꺼진 무대에서 야광색의 형체로 나타난 단원들이 하늘을 날 듯 묘기하는 부분은 '태양의 서커스 저리 가라'다. 전직 수영 선수와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구성된 팀의 개구리 연기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무대다. 특히 서커스 단원들이 아프리카 흑인에서 인디언, 러시아인 등으로 인종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캐릭터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전화 020-8479-6600 공연시간 19:30
가격 성인 120위안, 어린이 70위안(신장 110~140cm의 어린이, 110cm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 입장) 홈페이지 www.clcircus.com





시메롱 파라다이스 Paradise

시메롱 파라다이스는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에서 수입한 세계적 명성의 놀이기구를 70개 이상 구비하고 있다. 시메롱 파라다이스는 기존 놀이공원이 대부분 유럽 스타일로 꾸며진 데 비해 유럽과 중국 문화가 혼합된 퓨전 스타일로 꾸며져 있다. 시메롱 파라다이스의 놀이기구 중 4개는 아시아에서 최고를 자랑하며, 실내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무엇보다도 이곳의 청룡열차는 그 높이가 850m로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시메롱 파라다이스 청룡열차는 세계 최고의 높이라고 한다.

운영시간 10:00~19:00 **가격** 자유이용권 성인 170위안, 어린이 85위안(신장 110~140cm의 어린이, 110cm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 입장) **패키지요금**(파라다이스 자유이용권+서커스 관람료) 성인 220위안, 어린이 155위안 **홈페이지** www.chimelongparadise.com

+ More Information

백호 쇼 White Tiger Show

한국에서는 보기도 힘든 백호들이 열네댓 마리씩 나와서 쇼를 한다. 시양지양 백호 쇼는 조련사들의 쇼맨십이 좋고 프로그램이 기막하다. 기막히다 못해 신기한 것은 바로 백호의 오줌 쇼. 둥글게 처진 울타리 너머 관객을 향해 백호들이 오줌을 싸는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 젖을 정도다. 몇몇 중국인은 우산으로 오줌을 피하기도 한다. 또 관객과 백호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호랑이 오줌으로 젖은 무대 위에 관객들이 벌러덩 넘어지기도 한다. 오줌줄기에 맞거나 오줌 위에 넘어져도 개의치 않는 중국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앞자리는 피하도록.



새끼 백호와 기념 촬영

백호쇼장에서 나오면 새끼 백호와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있다. 1인 20~30위안이며, 사진 전시장에 자랑스러운 한류 스타인 장나라의 기념사진이 걸려 있다.



시양지양 사파리 파크 香江 Safari Park

동물원이 아닌 아프리카 한복판에 떨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시양지양 사파리 파크는 '사파리 온 휠(Safari On Wheels)'과 '사파리 온 풋(Safari On Foot)' 지역으로 나뉜다. 전자는 파크의 열차나 사륜구동, 카트 등을 타고 구경하는 지역이며, 후자는 걸어서 구경하는 지역이다. 사실 우리는 걸어서 구경하는 곳을 동물원, 차를 타고 이동하며 구경하는 곳을 사파리 파크라고 하지만 이곳은 개념이 다르다. 사파리 온 휠스는 우리가 여태껏 보았던 사파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다. 울타리가 없는 허허벌판에 아시아·아시아의 숲·육식동물·서아프리카·동아프리카의 테마로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어찌나 큰지 한 구역의 규모가 우리나라 사파리 파크와 맞먹는다.

운영시간 09:30~17:30 **가격** 성인 150위안, 어린이 80위안(신장 140cm 미만) **홈페이지** http://xjzoo.com.cn



레서 판다 Lesser Panda

작은 판다라는 뜻의 레서 판다는 생김새가 너구리와 같아 너구리판다라고도 불린다. 멸종 위기의 이 희귀동물이 시양지양에는 열 마리 넘게 있다.



중국 보물관 China Treasure Zone

유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중국이 아닌 곳의 동물원에서는 판다를 보기가 쉽지 않다. 중국까지 왔으니 판다는 꼭 보고 가자. 판다관은 판다의 주식인 대나무로 장식되어 있다. 실내에는 식사 삼매경에 빠진 판다를, 실외에서는 전용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판다를 볼 수 있다. 출구에는 판다 인형을 파는 숍이 있는데, 판다 인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

포항 시티투어버스 여행 One Day Tour

포항을 가장 쉽고 빠르게 여행하는 법. 바로 포항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는 꼬불꼬불한 운하를 따라 고상하게 크루즈를 즐기고, 산속에 숨은 듯 자리한 덕동마을에선 고택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든다.



포항시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경상북도 동해안 중앙에 있는 시
면적	1127.92km ²
인구	519,031명(2014년 기준)
기온	내륙 지역에 비해 겨울이 따뜻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적으며 강수량도 비교적 많다. 1월 평균 기온은 1.6℃, 8월 평균기온 25.4℃, 연강수량은 1,120.3mm이다.

포항 핵심 공략

운하 따라 시티투어



베니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밤베르크. 4개 도시의 공통점은? 바로 운치 있는 유럽의 운하 도시라는 것. 이제 더 이상 부러워만 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농수산품을 가득 싣고 물길을 헤치며 오가던 동빈내항 뱃길이 한동안 막혀 있다 최근 포항시의 생태복원 사업으로 수로가 활짝 열렸다. 소형 어선들이 드나들던 한산한 항구에 관광 크루즈가 다니면서 포항 역사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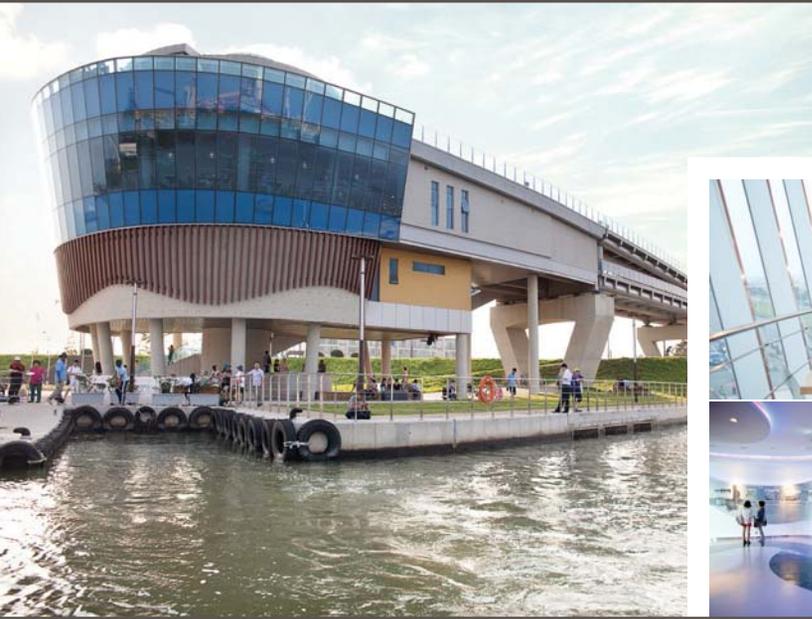
포항 시티투어 버스 루트

정기투어(토) 포항운하 크루즈-죽도시장-포스코 공장 견학-호미곶 관광지-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정기투어(일) 덕동문화마을-경상북도 수목원-영일대 해수욕장-포항운하관

반일투어(토·일)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장기읍성-포항운하관

야간투어(토) 환호공원-영일대 해수욕장-포항운하관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22 전화 054-278-8500(현대고속관광) 운영시간 09:30-17:30 가격 **총일투어** 성인 6000원, 학생 4000원, **반일 및 야간투어** 성인 4000원, 학생 3000원, 관광지 입장료 및 식대 등은 본인 부담, 15인 이상 출발 **홈페이지** www.hdair.kr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포항운하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주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와 함께 세계 4대 미항을 꿈꾸는 포항운하. 형산강과 영일만 바닷물이 만나는 독특한 항구라는 지리적 이점이 힘을 보태고 있다. 동그란 원통형의 유리 건물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곳은 포항운하의 홍보관이자 전망대다. 크루즈 티켓을 판매하는 2층 매표소를 지나 계단을 따라 오르면 홍보관이 나온다. 3층 홍보관에는 1800년대 동빈내항의 역사가 고지도와 함께 전시돼 운하의 설립 배경과 건설 과정 등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홍보관을 둘러보고 나온 이들은 심중팔구 전망 좋은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선착장과 형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040 카페 운영시간 평일 09:00-23:00, 금-일요일 09:00-24:00 가격 카페라테 4000원, 더치커피 4500원, 크림 슈 2000원

도심 속을 파고든 물길 포항운하 크루즈

1970년대 초 포항제철 준공으로 40년간 물길이 막혔던 동빈내항(포항 구항). 정체 수역으로 변한 동빈내항에 오염물이 쌓이면서 죽도시장까지 악취가 진동했고, 포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과거의 모습을 복원해 옛 물길을 되찾았고, 형산강 입구에서 송도교를 잇는 1.3km 구간에 실개천 같은 운하가 생겼다. 포항운하의 백미는 운하를 오가는 크루즈 투어. 코스는 2가지. 포항운하~동빈내항~송도해수욕장~선착장(40분)을 돌아오는 8km 길이의 A코스와 포항운하~포항항~선착장(30분)을 잇는 6km 길이의 B코스가 있다. 포항운하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구불구불한 운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최정화 작가의 <Flower Tree>, 조각가 문신의 <하늘을 나는 꽃>, 변대용 작가의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조형물이 설치돼 산책길의 운치를 더한다.



전화 054-253-4001 운영시간 10:00-18:00 가격 **A코스** 성인 1만 원, 어린이 8000원, **B코스** 성인 6000원, 어린이 5000원, **야간** 성인 1만 5000원, 어린이 1만 원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의 모든 것 포스코 역사관

The Posco Museum

포항 경제의 상징인 포스코(포항제철). 포항 시민 10명 중 7명이 포스코 관련 종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항

에서 포스코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포항을 여행하기 앞서 포스코 역사관을 둘러보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곳은 포스코 창립 과정과 기업 문화, 포스코가 걸어온 길 등 46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청암관'에서는 포항제철의 신화를 이룬 철강왕 박태준 초대 회장의 족적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주말에만 운영하는 제철소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최소 3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포스코 버스를 타고 연료 부두, 발전소, 제강공장, 연주공장, 제품 부두 등을 둘러보며 거대한 제철소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다.

전화 054-253-4001 운영시간 10:00-18:00 가격 **A코스** 성인 1만 원, 어린이 8000원 **B코스** 성인 6000원, 어린이 5000원, **야간** 성인 1만 5000원, 어린이 1만 원



세계 최장 길이의 트릭아트 호미곶 대보항

호미곶 대보면 구만1

리 마을에 가면, 빨간 등대가 있는 방파제 길을 따라 160m의 트릭아트를 볼 수 있다. 3개의 대형 트릭아트마다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이 기념 촬영하기에 바쁘다. 호미곶의 상징 <상생의 손> 그림이 하이라이트. 세계 최장 길이의 트릭아트로 알려지면서 사진 촬영하려는 이들로 늘 북적인다.



영일만에 우뚝 선 해상누각 영일대 전망대

아름다운 영일만에 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상누각. 2층 높이의 전통 누각 '영일대'는 포항의 새로운 명물로,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했다. 80m 인 도교를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바다와 한걸음 가까워진 느낌. 이곳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일출은 감동 그 자체다. 밤이 되면 포스코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현란한 LED 조명이 영일대 해수욕장을 화려하게 비춘다.

바다와 함께 사뽀사뽀 걷기

호미곶 관광지

한반도 동쪽 끄트머리 바닷가, 호미곶. 눈이 시리도록 푸른 동해 바다 위를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갈매기 떼와 묵묵히 서 있는 새하얀 등대, 거대한 청동 조형물이 그림처럼 마음에 덜컥 걸린다. 수평선 너머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가슴에 꼬깃꼬깃 접어둔 소망을 하나둘 펼쳐본다. 황홀하고 장엄한 풍광에 감동이 물결친다.



장엄한 태양과 조우하다 호미곶 해맞이광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에선 매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린다. 조각가 김승국의 청동 조형물 <상생(相生)의 손>이 마주 보며 서 있는데, 육지에 왼손이, 바다에 오른손이 설치돼 있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이곳을 찾는 이가 많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1999년 12월에 조성된 해맞이광장에는 20세기와 21세기를 기념하는 '성화대'가 놓여 있다. 또한 전국 최대 크기의 가마솥도 눈길을 끈다. 새해 첫날,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을 위해 떡국을 끓여 나눠주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다. 호미곶 광장의 너른 풍광과 탁 트인 동해 바다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새천년기념관'을 찾을 것.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옥상전망대에 오르면 가슴이 뽕 뚫린다.

주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전화 054-270-6681 홈페이지 homi-got.ipohang.org

등대의 역사가 한곳에 국립등대박물관

국내 유일의 등대 전문 박물관. 점차 사라져가는 등대 유물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 1985년 개관했다. 등대관을 비롯해 해양관, 야외전시장, 테마공원,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등대관에서는 1903년 팔미도 등대 점등 이후 우리나라 등대 100년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0번길 20 전화 054-284-4857 운영시간 09:00~18:00(17:30분까지 입장), 월요일 및 추석, 설날 당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lighthouse-museum.or.kr

포항 12경,
4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마을
덕동문화마을



포항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 첩첩산중 산자락마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고택들이 산 아래 웅기중기 자리해 있다. 예부터 덕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 '덕동(德洞)마을'이라 불렀다. 그래서인지 처음 보는 외지인들에게도 스스럼없이 인사를 건네고 냉수도 한 사발 기꺼이 내올 만큼 정이 넘친다. 마을 깊숙이 들어서자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청아한 계곡 물소리,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 등 자연의 미세한 숨결까지 생생하게 들린다. 1992년 문화부 지정 제15호 문화마을, 2001년 환경친화마을, 2011년 제4호 기록 사랑마을로 지정됐을 만큼 빼어난 자연을 자랑한다.

이강의 후손이 사는 고택 사우정 四友亭

여강 이씨 11대손 이회국 씨 부부가 살고 있는 고택. 160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81호로 지정됐다. 정면에는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아녀자들이 사용하는 안채와 부엌이 은밀하게 자리해 있다.



자연과 문화에
흠뻑 빠져들다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 머물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체험은 당일과 1박 2일 프

로그램으로 구성,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당교육, 서예, 다도예절, 숲 생태 체험 등이 이뤄지는 교육 체험을 비롯해 난타, 태권, 천연염색, 짚풀 공예 등을 배우는 문화 체험, 김치와 두부, 떡 등을 직접 만드는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따끈한 온돌방이 있는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좋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가북면 덕동문화길 7 전화 054-280-9372 가격 체험비 1만 1500원, 숙박 1인 1만~1만 2000원 홈페이지 potcec.phsisul.org

벼랑 끝에 세워진 조선 시대 별장 용계정 龍溪亭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 선생의 별장.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재산을 손녀사위인 이강(李綱)에게 물려줬고, 360년간 대를 이어오면서 여강 이씨의 집성촌이 됐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43호인 용계정은 벼랑 암벽 위에 개천을 굽어볼 수 있도록 세워졌다. 정조 이후에 세덕사(世德祠)의 부속건물인 강당으로 사용되다 1868년 고종의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밤새 담을 쌓아 화를 면했다. 팔작지붕의 목조 기와집인 용계정 주위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와 향나무, 백일홍이 든든하게 건물을 감싸고 있다. 용계정 맞은편에는 용계계곡이 유유히 흐르고 그 앞으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자연에 감사하며
쉬엄쉬엄 걷는 마을길
감사나눔둘레길

용계정을 빠져나오면 생태연못을 끼고 '감사나눔둘레길' 16번 코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1개 둘레길 중 구간이 가장 짧은 1km지만, 자연에 깊이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2006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을 만큼 울창한 소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350년 전 마을 식수로 사용된 회나무 우물을 비롯해 애은당, 여연당, 사우정, 덕계서당 등 수백 년 된 고택들이 둘레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인도양의 에메랄드, 페낭

The Jewel of Indian Ocean, Penang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Georgetown)에는 식민지풍 건물들이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내고, 바닷가 리조트 단지에는 느긋한 비치 라이프가 펼쳐진다. 게다가 과거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덕분에 중국과 인도, 중동의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미식까지! 24시간이 아까운 페낭에서 밤이 깊도록 여행의 자유와 방종을 욕심껏 만끽해보자.





페낭 여행정보

위치	말레이시아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면적	1048km ²
인구	152만 143명(2010년 기준)
기온	1년 내내 고온다습한 기후로 기온이 30℃를 넘나든다. 전형적인 열대 우림형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다. 낮 평균기온은 30~32℃이고 밤 평균기온은 23~25℃이며 연 강수량은 2670mm이다.



정글의 법칙 *Welcome to the Jungle!*

정글의 한 면을 잘라놓은 듯한 정원과 농장. 다양한 열대 동식물과 과일은 가이드와 동행할 때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도시 속 정글을 만나는 페낭 포인트 3곳.



야생 버라이어티 열대 향신료 정원 Tropical Spice Garden

레몬그라스, 진저, 시나몬 등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향신료 나무는 기본. 정원에 살고 있는 열대 동식물만 500종이 넘어 우거진 숲을 산책하는 듯하다. 수천 년을 산 나무에는 원숭이가 앉아 멀뚱멀뚱 쳐다보고, 은은한 향을 풍기는 잎 사이로 도롱뇽이 재빠르게 움직인다. 200년이 넘는 나무 그늘에 앉아 바람을 가로지르면 정글로 빠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 각각 색깔이 다른 화살표로 방향을 제시하는 3가지 트레일 코스를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 주로 향신료를 살펴보는 스파이스(Spice) 트레일, 관엽식물의 아름다움을 찾는 오너멘탈(Ornamental) 트레일, 드넓은 야생을 느끼는 정글(Jungle) 트레일이 그것. 향신료와 허브를 이용해 직접 요리하는 쿠킹 스쿨과 해변이 펼쳐지는 전망 좋은 타이 레스토랑이 있다.

주소 Lone Crag Villa Lot 595 Mukim 2 Jalan Teluk Bahang 11100 Penang 전화 604-8811797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15링깃, 아이(4~14세) 10링깃(가이드 투어 신청 시 5~10링깃 추가) 홈페이지 www.tropicalspicegarden.com

새콤달콤한 맛 열대 과일 농장 Tropical Fruit Farm

울창한 산속 고지대에 태생 그대로 과일 나무가 자란다. 100여 종 과일이 사람의 손길로 정렬된 느낌 없이 여기 저기서 마음껏 크는 이곳은 유기농 과일 농장. 말레이시아는 물론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자라는 낯선 열대 과일이 많아 호기심을 자극한다. 약 1시간 동안 가이드와 산길을 동행하며 20여 종이 넘는 과일을 만난다.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직접 따 맛을 보기도. 농장 한켠에는 야외 카페가 마련돼 싱싱한 과일과 주스를 맛볼 수 있고, 점심·저녁 식사로 바비큐 뷔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소 Batu 18 Jalan Teluk Bahang 11100 Penang 전화 604-8665168 운영시간 09:00~17:00 입장료 성인 35링깃, 아이 28링깃 홈페이지 www.tropicalfruitfarm.com.my



파야 섬 산호 투어 Pulau Paya Coral Tour

페낭에서 매일 아침 운행하는 페리를 타고 페낭 선착장에서 1시간 30분쯤 달리면 파야 섬에 도착한다. 파야 바다는 거짓말 보태지 않고 정말 '물 반, 고기 반'이라. 눈앞까지 다가와 수줍게 돌아서는 열대어를 보노라면 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파야 섬에는 환경 보존을 위해 일부러 선착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스노클링은 파야 섬 바로 앞에 떠 있는 바지선에서 시작한다. 물안경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면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려한 열대어와 산호들이 반긴다. 바닷속 저 깊은 곳의 매력을 느껴보려면 스쿠버다이빙이 최고다. 단, 전문 다이버에게 기본 강습을 받은 후에 다이버와 함께 물속 10m까지 체험이 가능하다. 오후 3시가 되면 스노클링을 끝내야 한다. 페리를 타고 페낭으로 되돌아가거나, 배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휴양지인 랑카위를 찾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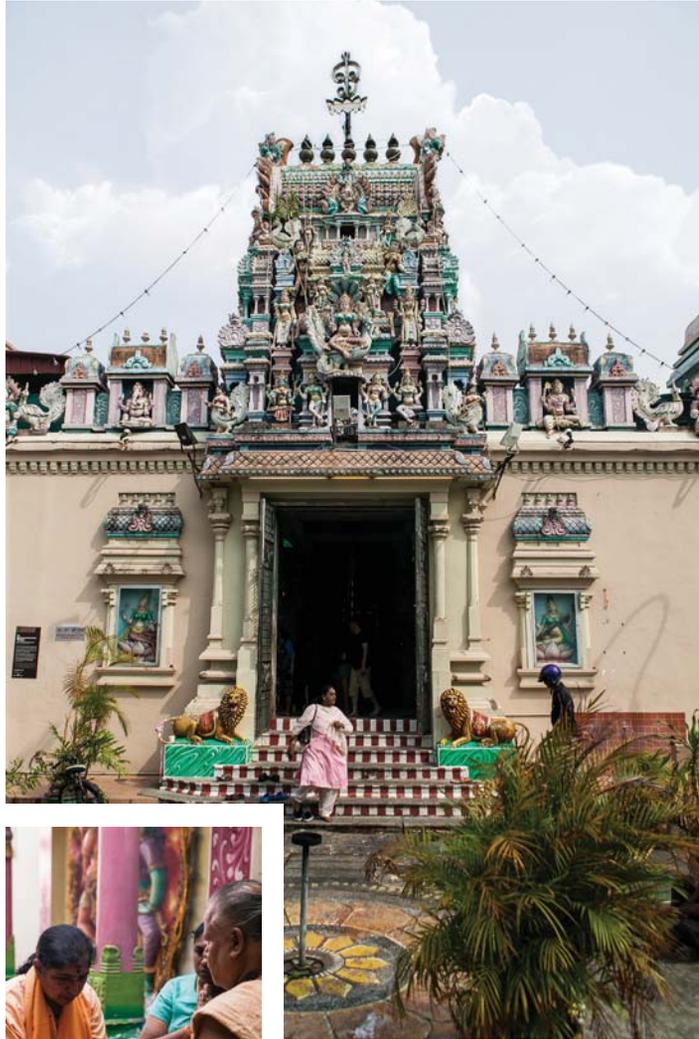
플라이 버터플라이 페낭 나비 농장 Penang Butterfly Farm

온통 나비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위로 수많은 나비가 날아든다. 농장에서 살고 있는 나비는 약 7000마리. 세계에서 처음으로 박제된 것이 아닌 살아 있는 나비를 전시한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나비 농장이다. 아주 작은 알에서 알을 먹는 애벌레가 되고, 딱딱하게 굳은 번데기를 거쳐 부화하는 나비의 탄생 과정을 관찰한다. 알록달록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사랑을 찾고, 암컷과 수컷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가이드 투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45분에 시작한다. 운이 좋으면 투어 마지막에 세상으로 첫 날개를 펼치는 나비 집을 열어볼 수도 있다. 그 외에 만지면 수줍어서 잎이 작아지는 식물과 나뭇가지인 양 흉내 내는 곤충 등 다양한 야생 생물이 있다.

주소 No. 830 Jalan Teluk Bahang 11050 Penang 전화 604-8851253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27링깃, 아이(4~12세) 15링깃 홈페이지 www.butterfly-insect.com

조지타운 순례길 Pilgrimage in Georgetown

조지타운 골목 사이사이 자리한 이슬람교·힌두교·중국식 사원.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배려하기에 한 공간에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



힌두교의 어머니 스리 마하마리암만 사원

Sri Mahamariamman Temple

힌두교의 신과 여신을 형상화한 굴곡 있는 문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883년 지어진 스리 마하마리암만 사원은 페낭에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성지다. 그들의 신은 힌두교의 어머니로 불리는 스리 마하마리암만(Sri Mahamariamman). 마리(Mari)는 힘을, 암만(Amman)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말로 어머니의 자애로운 힘을 뜻하는 여신이다. 걸보기에 장식은 화려하지만, 빠르게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는 소박한 편.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서면, 사원 중심에 자리한 신상 앞에서 힌두교만의 의식이 펼쳐진다. 촛불과 꽃잎을 두고 진행하는데, 보는 이도 숙연하게 만들 만큼 진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주소 Lebuh Queen Pulau Penang 전화 604-2643494

이슬람교의 위엄 카피탄 켈링 모스크 Kapitan Keling Mosque

말레이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다. 웅장하고 신성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카피탄 켈링 모스크는 페낭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다. 순백의 몸체에 금장식 포인트를 주고 검정 돔을 얹었다. 세워진 연도는 1801년.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종교이기에 막상 사원 안에 앉아 있는 무슬림을 보면 들어가기 망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을 제외하면 여행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단, 짧은 하의 차림으로는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옷을 빌려 입어야 한다. 사원 안에는 높은 기둥이 일렬로 서 있는 넓은 기도 공간이 자리한다. 엄숙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면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슬람교를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발하는 은은한 조명도 놓치지 말 것!

주소 Jalan Kapitan Keling Pulau Penang 전화 604-2643494



중국식 자비의 여신 관인 텡 사원 Kuan Yin Teng Temple

중국식 사원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짙은 향 연기가 자욱하다. 든든한 수호신 사자상과 붉은 기와지붕의 녹색 용이 지키는 관인 텡 사원은 늘 기도하는 신자들로 붐빈다. 페낭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식 사원이지만 크기는 작은 편이다. 이들이 모시는 신은 자비의 여신이자 재산, 평화, 풍요를 상징하는 '관인(Kuan Yin)'. 이 때문에 자비의 여신 사원(Goddess of Mercy Temple)이라 불리기도 한다. 1728년 중국 이주자들에 의해 세워지기 시작해 19세기에 완성됐다. 사원 안과 밖으로 늘어선 작은 노점상들은 향초 등을 파느라 분주하다. 실내에 들어서면, 종이돈을 태워 화덕에 넣고 향을 피우며 절을 하는 신자들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저녁에는 화려한 분장을 한 배우들의 중국 전통 공연이 펼쳐진다. 여신의 생일은 음력 2월, 6월, 9월의 19번째 날로 축하 행사가 열린다.

주소 Lintang P Ramlee Pulau Penang 전화 604-2643494





인도 만물상 리틀 인디아 Little India

페낭에 인도가 등장했다. 리틀 인디아는 이름대로 작은 인도를 옮겨다놓은 듯한 거리다. 옷, 장식품, 향신료, 음악, 영화, 음식 모두 인도의 것! 인도의 전통 의상 실크 사리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지나가고, 노점 요리사는 난을 부치느라 손이 바쁘다. 역동적인 인도 음악과 영화가 한데 어울려 전시되고, 길 위에 담요를 깔아 점집을 차린다. 늘 사람들과 차로 북적이는데, 그렇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자. 여유를 갖고 찬찬히 사람들을 바라보면, 인도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 숨은 매력을 발견할 것이다.

찾아가는 법 조지타운 내 레부킹(Lebuh King) 도로 부근

다양한 문화 체험 Ethnic Neighborhoods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묵묵히 지켜가는 페낭 속 작은 나라.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



소박한 전통 마을 발릭 플라우 Balik Pulau

번잡한 시내를 바빠 돌아다니다 발릭 플라우(Balik Pulau) 마을에 가면 모든 것이 느릿느릿해진다. 말레이시아 전통 가옥을 엿볼 수 있는 마을로 조용하고 소박하다. 키 높은 야자수가 훑길 사이로 뻗어 있고, 오랜 세월 손때 묻은 집들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낮은 끈에 빨래가 주르르 널려 있고, 자전거 바퀴 구르는 모습에 사람 냄새가 난다. 집의 바닥을 낮은 기둥을 받쳐 높인 것은 뱀과 같은 해로운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 가운데 고소한 전통 과자를 굽는 집 바후루 막 탐(Bahulu Mak Tam)에 가면, 특별한 날 먹는 다양한 전통 과자와 색색의 젤리를 맛볼 수 있다.

바후루 막 탐 주소 Belakang Sekolah Keb. Sg. Korok 584 Jin. Bharu Balik Pulau Penang



야시장 그 다양한 풍경 속으로 Batu Ferringhi Night Market

해 질 무렵이면 바투 페링기 해변을 따라 1km의 거리에 야시장이 들어선다. 말레이시아 특산품인 수공예품, 전통 문양의 바틱, 짝퉁 명품, 시계, 액세서리 등 온갖 물건을 만날 수 있다. 시내 상점이나 면세점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싼 데다 품질도 나쁘지 않아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흥청거리는 술집 대신 코골 흔들어대는 바람과 푸른 바다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노천 시장으로 페낭 사람들의 정서가 묻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슬람이 국교인 만큼 나라의 법도 엄해서 치안도 비교적 안전해 혼자 돌아다녀도 안심이다.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새벽 1시까지 불을 밝힌다.



물 위의 집 추 제티 Chew Jetty

페낭에 새로운 집을 꾸린 중국인들은 같은 성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수상가옥촌을 이루고 산다. 추(Chew), 리(Lee), 림(Lim), 탄(Tan) 등으로 성이 다양한데, 추 제티는 그중 추(Chew)라는 성을 지닌 중국인들의 마을로 규모가 가장 크다. 19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해 1918년 지금에 가까운 형태를 갖췄다. 당시 많은 사람이 무역상이나 어부로 일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다른 일에 종사한다고. 나무 바닥 밑으로 물이 흐르고, 그 위에 어엿한 집들이 웅기종기 들어서 있다. 창문 밖으로 애잔한 노랫소리, 지글지글 요리하는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새어나와 그들의 삶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59A 집에서는 여행자를 위한 홈스테이를 운영한다. 이는 수상가옥에서 직접 머물며 화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마이 추 제티 홈스테이(My Chew Jetty Homestay)'란 이름으로 운영되며, 아고다(Agoda), 호텔스 컴바인(Hotels Combined) 등의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조지타운 내 펑갈란 웰드(Pengkalan Weld) 도로 부근



『페낭의 맛 Local Flavors』

중국, 태국, 인도 등 다른 나라와 섞인 말레이시아 음식은 물론 독특한 지역색으로 무장한 페낭 스타일을 맛보려면 이곳으로 가자!

피클의 새로운 개념 초우라스타 시장 Chowrasta Market

형형색색 피클이 페낭에서는 디저트가 된다. 두리안, 파파야, 넛맥, 양파 등을 이용해 만든 피클을 요리와 함께 먹는 것이 아닌 간식처럼 먹는 것!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 때문에 가게 주위로 벌들이 날아올 정도다. 초우라스타 시장 입구 주변에서 피클 가게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피클과 함께 과자, 빵, 젤리 등의 다양한 간식을 판매한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날것의 고기와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나라 서민들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시장으로 가라는 말처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찾아가는 법 조지타운 내 잘란 페낭(Jalan Penang) 도로 부근



이슬람 맛 축제 파사르 라마단 Pasar Ramadhan

이슬람교 5대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Ramadhan).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 물을 포함한 그 어떤 음식도 금지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해가 지면 마음껏 먹으며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로 시내 곳곳에서 파사르(Pasar), 즉 시장이 열린다. 이때가 현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맛보는 갖가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매년 약 한 달간 열리는데, 1년이 354일인 이슬람력의 9번째 달에 시작해 열흘씩 빨라진다. 2014년 라마단은 6월과 7월 사이로 이미 끝났지만, 매해 열리는 만큼 기간을 확인해두자.



거리의 레스토랑 거니 드라이브 Gurney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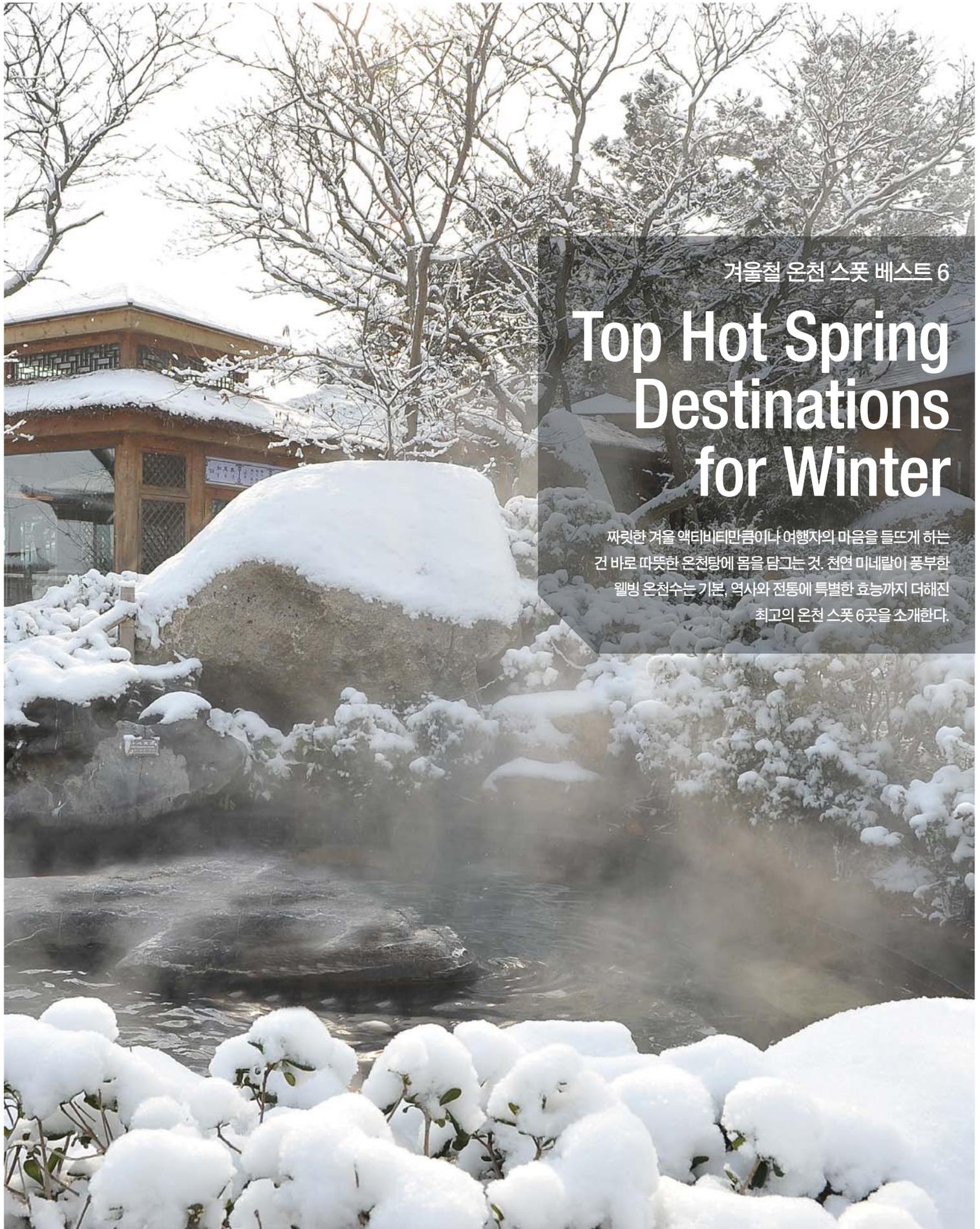
맛의 도시로 소문난 페낭에서 진정한 맛 기행을 떠나려면 거니 드라이브는 필수 코스다. 해변이 펼쳐지는 도로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온갖 맛을 뽐내는 다양한 포장마차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열리는 이곳은 여행자는 물론 현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거리의 레스토랑! 양쪽에 일렬로 들어선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 앞에 앉으면, 해산물과 고기 등으로 만든 국수, 꼬치, 볶음밥, 튀김, 구이 등을 맛볼 수 있다. 인기가 많아 꽤 혼잡하지만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느낌이다. 가격은 대개 10링깃(약 3600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다.

찾아가는 법 페낭 북동쪽 페르시아란 거니(Persiaran Gurney) 도로 부근

페낭 포장마차 먹을거리 탐방 Penang Street Foods

페낭에 밤이 찾아오면 포장마차로 현지 음식 탐험에 나서보자. 페낭의 북쪽 해안에 자리 잡은 '거니 드라이브'에 가면 다양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다. 현지 사람들이 추천하는 페낭의 대표적인 맛은 '락사(Laksa)'라고 불리는 국수 요리. 지역에 따라 국물을 내는 재료가 다양한데, 페낭에서는 정어리를 이용한다. 장시간 푹 끓여 비린 맛이 없고 매운 양념을 넣어 얼큰하다. 국수만으로 성이 안 찬다면 '로작(Rojak)'이라고 불리는 샐러드를 곁들여 먹자. 각종 열대 과일을 한입 크기로 썬 다음 자두와 칠리소스로 만든 드레싱을 뿌리고 땅콩가루로 마무리한다. 달 짝지근한 맛과 매운맛이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외에 팔뚝수와 비슷한 '아이스까창', 각종 튀김 요리, 사탕수수 주스, 각종 열대 과일 등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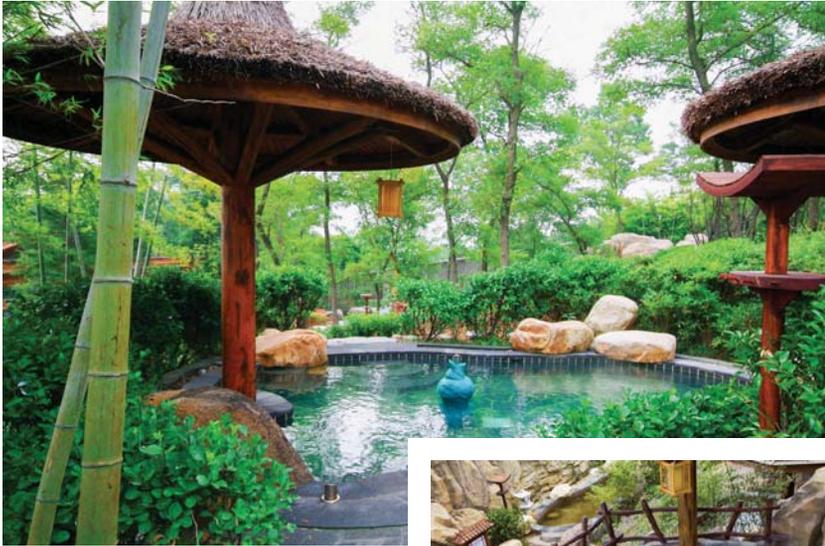




겨울철 온천 스폿 베스트 6

Top Hot Spring Destinations for Winter

짜릿한 겨울 액티비티만큼이나 여행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건 바로 따뜻한 온천탕에 몸을 담그는 것.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웰빙 온천수는 기본, 역사와 전통에 특별한 효능까지 더해진 최고의 온천 스폿 6곳을 소개한다.



중국 온천의 새로운 발견

천목 웨이하이 온천 산둥,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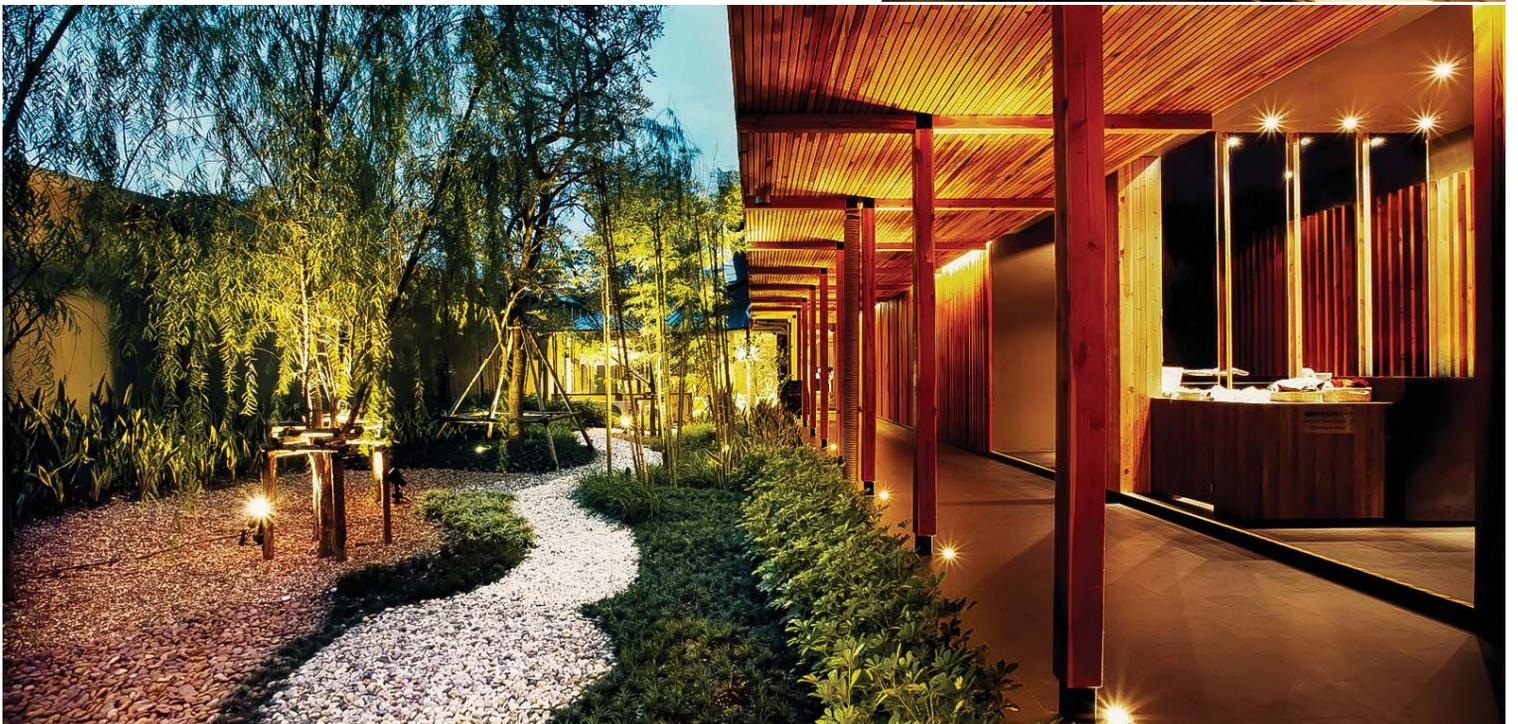
‘온천’ 하면 일본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요즘 대세는 나라 구석구석에 2300개의 온천 리조트가 자리한 중국. 그중 가장 주목받는 온천 중 하나가 바로 산둥성 동쪽의 항구도시 ‘웨이하이’에 있는 ‘천목 웨이하이 온천’이다. 중국 각지에 대규모 리조트를 갖고 있는 천목 그룹의 플래그십 리조트인 천목 웨이하이 온천은 내부에만 60여 개의 노천탕과 실내·외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 등을 갖추고 있다. 60여 개 노천탕을 모두 즐기려면 하루를 꼬박 소비해도 모자를 정도. 6가지 한약재를 넣었다는 ‘6복탕’, 마사지 효과가 있는 안마탕, 땀이 쏙 빠지는 고온탕, 은은한 과일향이 나는 과일탕, 그리고 커피콩으로 우려낸 커피탕 등 다양한 테마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한국식, 태국식, 일본식 탕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온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천목 웨이하이 온천의 온천수는 지하 5000m에서 끌어올린 해양 광천수로 인체에 유익한 성분 48종이 포함되어 있다. 유향 온천과는 달리 수질이 부드럽고 향도 약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방콕에서 즐기는 일본식 전통 온천

유노모리 온천 방콕, 태국

일본어로 ‘숲 속의 온수’라는 뜻의 ‘유노모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유노모리 온천은 현재 방콕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전통 일본식 온천이다. ‘방콕에 웬 일본식 온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내내 덥고 습한 방콕에서 제대로 된 온천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방콕의 쇼핑지인 수쿰윗 중심부에 위치한 유노모리 온천은 그런 방콕인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주기에 충분하다. 외관은 일본의 료칸을 본떠 만들었지만, 유노모리 온천의 자랑인 온천수는 태국 남부 칸차나부리(Kanchanaburi) 지역의 왕까나이(Wangkanai) 온천에서 가져왔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몸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전통 온천 이외에도 탄산수에 몸을 담그는 소다 스파(Soda Spa), 강한 물살로 마사지 효과를 내는 제트 스파, 일본식 정원에서 즐기는 노천 스파, 그리고 일본의 전통 나무 욕조를 이용한 티크 배스(Teak Bath) 등 다양한 온천욕을 할 수 있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근 후 말랑말랑해진 몸을 타이마사지로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





천연 욕탕에서 즐기는 해수 온천 히라우치 해중 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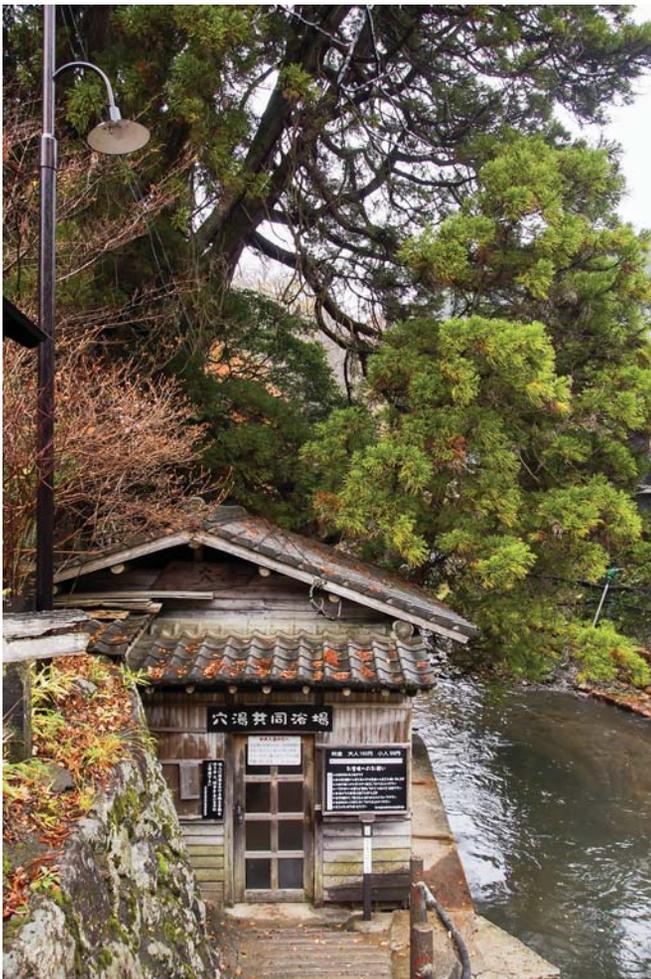
가고시마, 일본

야쿠시마 섬 남단에 위치한 해중 온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하루에 2번, 간조 전후로 5시간 정도만 모습을 드러내는 희귀한 온천이다. 바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탕에 바위 틈새로 나온 온천수가 고여 천연 온천탕이 만들어지는데, 바닷물이 온천수와 섞여 황산 농도가 높은 일본의 일반 온천보다 수질이 부드럽다. 가장 큰 욕탕은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욕탕도 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온천인 만큼 정해진 입장료는 없고 온천을 관리하는 근처 마을에 자율적으로 100엔씩 기부하면 된다. 온천 방문 시 주의할 점은 탈의실이나 샤워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수영복 착용도 금지되어 있어 사람이 뜬 바위 뒤에서 탈의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탕에 들어가기 전에 꼭 탕 속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만조 때 떠밀려온 어류들이 탕 속에 남아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전통 온천 마을 구로카와 온천

구마모토, 일본

온천을 즐기는 여행자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일본 구마모토의 구로카와 마을. 규슈의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구로카와는 일본의 여느 온천 마을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 마을 내 모든 료칸이 일본식 전통 가옥으로 되어 있고 편의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이 없어 마치 일본의 옛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이다. 구로카와에는 총 24개의 온천이 있는데 온천마다 서로 다른 성분의 온천수를 선보이고 있어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개의 온천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온천 입장료는 500엔 이하로 저렴한 편. 6개월 동안 구로카와의 모든 온천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설악산과 동해바다에 둘러싸인 힐링 온천

척산온천휴양촌 속초, 한국

연말을 맞아 동해의 겨울바다와 눈 덮인 설악산이 있는 속초의 척산온천으로 온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1974년 온천공을 확보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온 '척산온천휴양촌'. 이제는 속초의 명물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게다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더욱 쾌적한 공간과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제공한다. 휴양촌에는 온천탕과 사우나 외에 찜질방, 풀장, 힐링센터 등이 있다. 힐링센터에서는 온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족욕'이 아닌 '수욕'을 할 수 있는데, 두 손을 온천수에 넣고 있으면 온몸에서 땀이 흘러 효과적으로 피로를 풀 수 있다. 별관의 찜질방과 온천탕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24시간 운영, 주말을 이용한 여행자들이 하룻밤 묵어가기 좋다. 부대시설 역시 훌륭한 편. 소나무 3000여 그루가 심어진 산책로와 설악산 울산바위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휴게소 '휴향정'이 매력적이다. 휴양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로 설악산 소공원까지 10분, 속초 해변까지 15분이 소요된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진흙 온천 관쓰링 온천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역시 일본만큼이나 풍부한 지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전국에 128곳의 다양한 천연 온천이 자리한 대만은 냉천탕에서 열탕까지 다양한 양질의 온천탕을 보유하고 있어 '온천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중 타이난 시 백하구에 위치한 대만의 4대 온천 중 하나인 관쓰링 온천은 지하 암반층의 진흙질과 광물질이 섞여 거무스름한 색을 띠는 것이 특징. 또 이 지역에는 천연가스와 유황이 많이 나오는데, 진흙을 이러한 천연 열원으로 가열하면 매끄럽고 짙은 유황 냄새를 풍긴다. 진흙 온천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관쓰링 온천은 산기슭에 있어 해 질 녘엔 야자수와 석양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즐기며 온천욕을 할 수 있다. 대만의 노천 온천에서는 맨몸으로 목욕하는 것이 실례이기 때문에 수영복과 수영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내년에 말라카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내년에도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4월 15일에 열리는 '말라카 시 건립 기념 행사'의 규모가 가장 큼니다.

또 다른 행사로는 '제15회 말라카 국제 자매도시 컨벤션'이 있습니다. 4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행사로 세계 자매도시들의 현황과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 자매 도시의 대표들이 참석해 자매 도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교류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7월 7일에는 '제7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축제'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말라카 시는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문화 축제를 개최하는데, 내년이면 벌써 7회를 맞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도시 전체에서 다양한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도시 곳곳의 역사지구에서 이벤트가 열려 현지인은 물론 해외여행자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행사로는 '말라카 국제 리버워크 축제'가 있습니다. 미국 산안토니오에서 열리는 리버워크 축제를 모티브로 시작한 것인데 드래곤 보트 대회, 워터 스포츠 페스티벌, 킹 & 퀸 뱀 쇼, 말레이시아, 인도, 포르투갈의 대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컬처 쇼, 화려한 복장과 장식으로 가득한 퍼레이드 행사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말라카 시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치 정부로서, 말라카 시는 말라카가 아름답고 역동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

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말라카의 관광산업 성장률을 도시의 농업과 산업 성장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호텔, 리조트, 공원 등의 관광 시설 개발도 말레이시아의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정부는 말라카의 관광산업을 도시 GDP의 주산수익원으로 삼았고, 2020년까지 해외여행자 2000만 명과 평균 숙박일 3일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와 TPO를 위한 조언이나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시오.

국제시장에 걸맞은 고품격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업체들이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TPO와 TPO 회원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TPO를 통해 그동안 여러 회원 도시들과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원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인맥과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도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TPO 회원 도시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나 램 투어, 자매 도시 체결, B2B 이벤트 등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시·김해시, 대한민국

허왕후신행길 축제 공동 개최



지난 11월 8일, 한국의 부산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TPO가 주관하는 '허왕후신행길 축제'가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화명생태공원과 김해시의 대성동 고분군 일원에서 열렸다. 허왕후신행길은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오랜 항해 끝에 첫발을 디딘 망산도에서 시작, 첫날밤을 보낸 흥국사를 거쳐 서부 낙동강 지역과 고대 가락국의 수도 김해로 이어지는 길을 말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허왕후·수로왕의 전설을 '인도 공주 허황옥 결혼대작전'이라는 이름의 대

체현실게임(A.R.G.) 방식으로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부산-김해 행사장 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 지역 간 경계 없이 자유롭게 행사를 즐겼다. 가야·인도 복식 체험, 김해 분청도자기 체험, 김해장군차 시음, 숯대 만들기, 가야금관 만들기 등 가야 시대 부스와 미션 부스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허왕후 영점 퍼포먼스와 뮤지컬 퍼레이드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축제 일정에 맞춰 중국 3대 국영 여행사(CITS)의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지점과 일본 규슈 지역 아웃바운드 여행사 후지 투어리스트,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을 초청, 팸투어를 하며, 부산·김해의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등 허왕후신행길 관련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허왕후신행길 축제는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첫번째 상생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가오슝, 대만

제25회 TPO운영위원회&TPO관광교역상담회 (TTT 2014-Kaohsiung) 개최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만 가오슝에서 제25회 TPO 운영위원회와 TPO 관광교역상담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광저우(중국), 쑤아(중국), 부산(한국), 후쿠오카(일본), 호치민(베트남), 이포(말레이시아) 6개 운영위원회 16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11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주한명 사무총장의 TPO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4개의 도시회원과 1개의 민간단체의 신규회원 가입, TPO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 2013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2015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었고, 연회비 인상안은 보류되어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열린 TPO관광교역상담회(TPO Travel Trade 2014-Kaohsiung)에는 가오슝 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지의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 15개사가 참가, 성황을 이뤘다. 관광교역상담회에는 운영위원회시뿐 아니라, 10개 회원도시 대표 23명이 참가해 대만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자국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등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타이안과 가오슝의 관광자원 현장 시찰을 통해서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가오슝의 관광 관련 행정 업무와 관광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두, 중국

청두 대표단, TPO 사무국 방문

지난 10월 14일 청두시 외사판공실 대표단이 10월 14일 TPO 사무국을 방문, 주한명 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청두 대표단은 TPO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TPO 활동에 청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또, 2016년 제7회 포럼 및 2017년 총회 개최의 의지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TPO 관광정보센터 설립과 관련, 청두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청두가 주축이 되어 운영 중인 '우호도시 연합회'의 향후 TPO와의 연계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청두 대표 루성 주임은 청두 시의 차기 TPO 공동회장도시 희망 의사를 전달하며, TPO와 청두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증진 및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간다고 약속했다.



페낭, 말레이시아

TPO 사무총장,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 대표단 접견



지난 10월 8일,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이하 TPO) 주한명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페낭 시의회 대표단을 접견, 내년도 TPO 활동과 상호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TPO 주요

공동사업인 관광정보센터 설립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내외 주요 관광기관들의 협력은 물론, 페낭 주정부관광청 'Penang Global Tourism'을 통한 회원도시 홍보 기사 교환사업의 참여도 약속했다. 페낭 시 대표단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제7회 TPO총회와 7월 개최 예정인 TPO학생여행교환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향후 TP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 모하메드 아크바 빈 무스타파(Haji Mohamed Akbar Bin Mustapha) 페낭 시 국제교류과장은 페낭에서 TPO 회원도시의 문화 및 예술축제 개최를 제안했고, 양측은 앞으로 TPO와 페낭 간의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12 December 2014

Festival Calendar



한국 고양 | 12월 4일~12월 6일
2014 월드시식품박람회 개최
장소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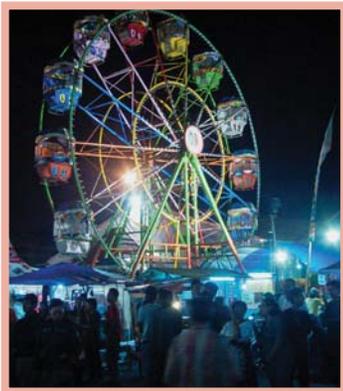
식품 전문 언론사인 <식품저널> <월간외식경영> <월간친환경>이 공동 진행하는 식품박람회. 수도권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와 식품 관련 국내외 바이어들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 개최의 목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식품 기획 판매전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 | 12월 4일~7일
제 9회 세계요리축제
장소 배낭족 거리

매년 호치민에서 열리는 세계요리축제. 베트남의 여러 진미는 물론 20개 이상 참가 국가 및 지역의 최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5성급 호텔 세프에게 직접 요리를 배워보는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되고, 바텐딩 퍼포먼스 및 주류 시음회도 예정되어 있다. 전통음악과 춤 등 문화 교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 부산 | 11월 29일~2015년 1월 4일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장소 부산시 중구 광복로 일원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등을 1.2km 구간에 걸쳐 볼 수 있다. 올해는 지난 축제에 사용되었던 구조물들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고, 메인 트리 역시 훨씬 높아진 20m로 제작할 예정. 또한 이번 축제에는 토크 콘서트, 보물찾기 등 다수의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 11월 28일~ 2015년 1월 2일
빠사르 말람 뿌라야안 세카텐
장소 술탄 궁정 광장

약 한 달 동안 술탄 궁정 광장에서 열리는 야시장.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쌀과 달걀 같이 주로 판매되며 밤늦게까지 흥겨운 축제가 이어진다. 사원의 수난궁에서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두 팀의 가물란 연주가 축제의 절정을 알린다. 북쪽 광장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 | 11월 하순~
윈터 일루미네이션
장소 후쿠오카 시내

매년 겨울 후쿠오카 시내의 공공시설과 기업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도심 곳곳을 일루미네이션으로 물들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장, 신문사, 백화점과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양한 일루미네이션을 설치해 도시의 매력을 끌어낸다. 미쓰코시 백화점 근처의 게고 공원에 메인 무대가 설치된다.

일본 가고시마 | 12월 1일~ 2015년 1월 31일
동계 빛의 회랑
장소 가고시마역 광장, 미나토오도리 공원, 덴몬칸, 마이애미 거리, 돌핀포트 등

가고시마에서 도심 곳곳의 어둠을 색칠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일루미네이션을 점등한다. '동계 빛의 회랑'이라는 주제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가고시마역, 덴몬칸, 돌핀포트, 미나토오도리 공원, 전차 선로 등을 중심으로 총연장 2km에 이르는 구간을 일루미네이션으로 물들인다. 또한 매일 오후 7시, 8시, 9시 정각에는 전 구간을 일제히 점등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의 세계를 선보인다.



필리핀 마닐라 | 12월 5일~ 21일
마닐라 국제 바자회
장소 마닐라 세계무역센터 메트로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연례 자선행사이자 규모도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 2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600개 이상 기업이 설치한 700여 개 부스를 오가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한다. 가방,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향수 등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만인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01 January 2015

Festival Calendar



중국 하얼빈 | 1월 5일~2월 5일
국제 빙설축제
장소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세계 4대 빙설 축제에 꼽히는 하얼빈의 대표적 겨울 축제.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20만의 얼음을 동원해 만든 1000여 개의 얼음 건축물이 전시된다. 흡사 영화 <겨울왕국>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규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을수록 더욱 활기를 띠는데, 얼음 조각 속 등불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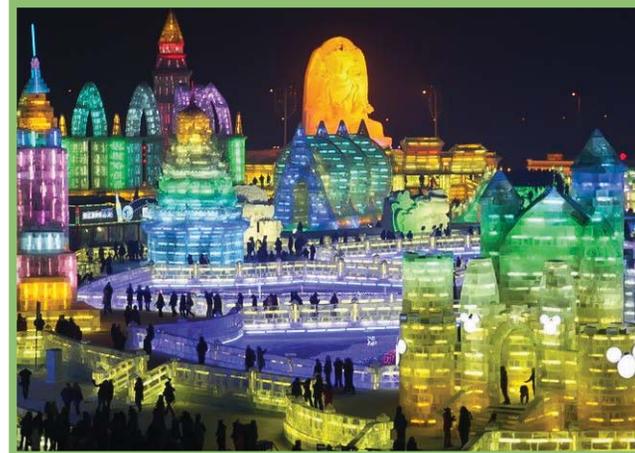


중국 청두 | 1월 28일
대묘회(大廟會)
장소 청두 무후사(武侯祠)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청두의 춘절 민속행사로, 묘회란 지역의 사찰 주변에서 열리는 종교 행사나 축제 등을 말한다. 청두의 무후사는 삼국지의 유비와 제갈량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중국인이 즐겨 찾는 사찰 중 하나다. 올해 대묘회는 '시민의 대묘회'를 주제로 참여형 행사로 진행, 관람객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빨간 주머니를 나눠준다. 아름다운 등불과 공연을 감상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 1월 3일
그렉백 마우루드 축제
장소 마스짓 아궁 궁정 주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 이슬람력을 기준으로 매년 12번째 날에 열린다.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날 각 지역의 모스크에 모여 예배와 함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성스러운 전통의식을 치른다.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어 구렁안이라는 원뿔형의 공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일본 후쿠오카 | 1월 3일
다마세세리 축제
장소 하코자키 궁(宮崎宮)

국가 중요문화재인 하코자키 궁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 새해의 풍작과 대어를 점치는 신년 행사로, 돌로 만들어진 궁을 남자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겨루는 것이 진행 방식이다. 궁에 닿은 사람은 악행과 재난을 피하고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 마지막에 궁을 손에 넣은 참가자가 바다 쪽 출신이면 풍어, 육지 출신이면 풍작의 은혜를 받는다고 전해진다.



일본 후쿠오카 | 1월 8일~1월 11일
도오카 에비스
장소 도오카 에비스 신사(十日恵比須神社)

매년 정월 10일을 즈음해 도오카 에비스 신사에서 한 해의 행운과 행복을 비는 행사. 상업의 신인 에비스에게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9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되는 '가치마이리'라고 하는 하카타 게이샤들의 퍼레이드가 가장 큰 볼거리. 수많은 관광객이 카메라를 들고 신사를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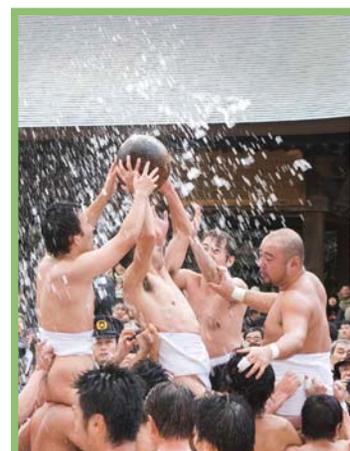


대한민국 울산 | 2014년 12월 31일~1월 1일
간절곶 해맞이 행사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일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에서 열리는 행사. 새해 전날 저녁의 해넘이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송년 콘서트, 불꽃놀이, 신년 축하공연, 농특산물 및 새해 떡국 나누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 위치한 '별빛체험관'에서는 화려한 은하수와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안동 | 1월 중
암산얼음축제
장소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국 최고의 천연 빙질을 자랑하는 안동의 대표 겨울 축제. 빙어 낚시, 얼음썰매, 얼음동굴, 얼음 미끄럼틀, 스케이트 등 얼음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다양한 놀거리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그동안 남후면 주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축제부터는 시 단위 행사로 승격되어 행사 기간과 주요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다.



02 February 2015

Festival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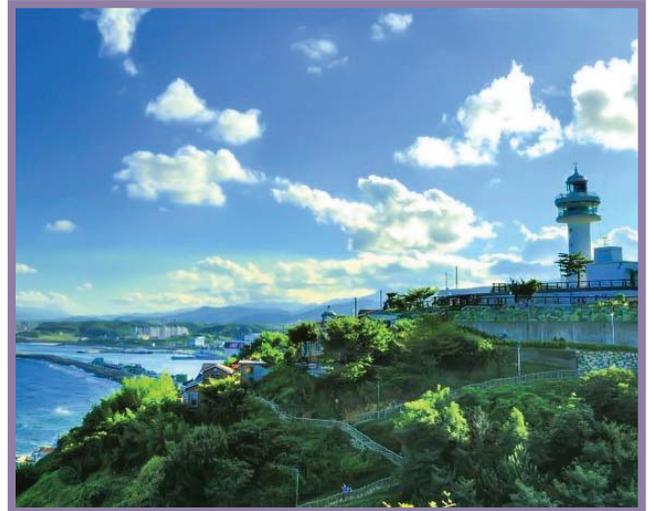
러시아 이르쿠츠크 | 2월 내내
짐니아다(Zimniada) 겨울 스포츠 축제
 장소 바이칼 호수 주변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매년 개최되는 겨울 축제. 빙상 경주, 빙상 마라톤, 설상 발리볼, 산악 스키 경주 등 특별한 겨울 스포츠를 한자리에 즐길 수 있다. 동쪽 호숫가에서 서쪽 호숫가 끝까지 이어지는 썰매 경주가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 본래 바이칼 호수 지역은 낮이 짧고 기온이 낮아 관광업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스포츠 축제 개최 이후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주 | 2월 하반기
2015 경주 전국 연날리기 대회
 장소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 일원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원이 주관하는 '경주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5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선 방패연 싸움, 창작연날리기, 왕위전, 가오리연 높이(멀리) 날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관람객들이 직접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연 전시 및 만들기, 투호놀이, 윷놀이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한국 동해시 | 2월 중
제74회 동해시 묵호항 수산물축제
 장소 동해시 묵호항 일대

묵호항 개항 74주년을 기념하는 수산물 축제. 어획량 감소로 쇠퇴하던 묵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동해시의 '묵호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사 기간 묵호항 일대에서는 어선 승선 체험, 봉장어 릴레이 게임, 가족 수산물 낚시체험, 수산물 직판 할인행사 등 지역의 싱싱한 해산물을 이용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대만 타이중 | 2월 27일~3월 15일
대만 등불축제
 장소 타이중 시

대만의 전통 명절인 원소절을 기념하는 등불축제. 이번 축제는 우르(烏日) 고속철도 부근을 포함해 타이중 공원 및 평위안 구를 중심으로 열린다. 매해 등불축제의 중심지에는 그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테마 등(Theme Lantern)으로 정하는데, 올해는 높이 20m의 대형 양 모형 등불을 설치, 양의 해를 기념할 예정이다. 예술가들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각양각색의 등불이 시내 곳곳에 세워진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붉은 천등에 소원을 담아 하늘로 날려 보내는 모습이 압권이다.



대만 타이난 | 2월 10일~2월 15일
쥐엔춘(眷村) 설날맞이시장
 장소 타이난 시립 야구장

13년째 열리는 타이난의 신나는 연례행사로 타이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총 100여 개 노점이 참여, 쥐엔춘 특유의 설날맞이 음식을 판매하고, 다양한 전통 행사를 열어 지난 해보다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쥐엔춘의 전통문화와 타이완 풍속이 어우러진 행사로, 설날맞이 용품을 구입한 후 근처 수교사(水交社) 쥐엔춘 문화지구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와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 | 2월 3일
절분제
 장소 구시다 신사 일원

일본에서는 기후가 바뀌는 시기를 '절분'이라 한다. 매년 구시다 신사에서는 절분에 맞춰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절분제를 개최한다. 구시다 신사 입구에 걸려 있는 일본 최대 크기의 오타후쿠 가면을 통과하면 공덕이 쌓인다고 믿고 있다. 신사 안에서는 액운을 쫓기 위한 콩 뿌리기, 가면을 쓰고 참배하는 오바케 참배 등 하카타의 정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TPO Members

76 city members, 38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CHINA		RUSSIA		JAPAN	
Chengdu	Suzhou	Vladivostok		Fukuoka	
Qingyuan	Tianjin	Irkutsk		Kagoshima	
Dalian	Urumqi			Kitakyushu	
Foshan	Weihai	KOREA		Kumamoto	
Guangzhou	Yantai	Andong	Gunsan	Miyazaki	
Hangzhou	Zhangjiajie	Busan	Gwangju	Osaka	
Qingdao	Zhaoqing	Busan Haeundae-gu	Gyeongju	Shimonoseki	
Sanya	Zhengzhou	Busan Jung-gu	Hadong	Takeo	
Shanghai		Buyeo	Iksan		
Shaoguan		Changwon	Incheon		
Shenyang		Chuncheon	Jeonju		
	CHINESE TAIPEI	Daegu	Namhae		
	Kaohsiung	Daejeon	Pohang		
	Taichung	Donghae	Sokcho		
	Tainan	Gangneung	Tongyeong		
		Geoje	Ulsan		
THAILAND	VIETNAM	Gimhae	Yeongju		
Bangkok	Danang	Goyang			
	Hai Phong				
	Hanoi	PHILIPPINES			
	Ho Chi Minh	Manila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INDUSTR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Kinki Nippon Tourist Co., Ltd. Fukuoka Office JTB Corp. Fukuoka Office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